

축사

2026. 9. 22.(火) 14:00

금융위원장
이억원

※ 보도 편의를 위해 제공된 자료로 실제 발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I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이억원입니다.

오늘 「피지컬 AI 지역거점 발전 포럼」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피지컬 AI의 미래와 지역의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뜻 깊은 행사를 참석하기 위해 먼 발걸음을 해주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경훈 부총리님,
전북특별자치도 이원택 도지사님,
경상북도 이철우 도지사님,
경상남도 박완수 도지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 중이신
박춘원^{전북은행}, 강정훈^{iM뱅크}, 김태한^{BNK경남은행}
은행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피지컬 AI 산업을 직접 이끌고 계신
기업인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Ⅱ 피지컬 AI와 정부의 정책방향

여러분,

최근 글로벌 AI 경쟁은
디지털 공간의 생성형 AI를 넘어

현실 세계에서 직접 움직이고 판단하는
피지컬 AI 시대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정부도 지난 6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하고,

반도체, AI 데이터센터와 함께
피지컬 AI를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경쟁력과
생산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피지컬 AI 경쟁에서 유리한 출발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조 현장에서 축적된 데이터와 공급망, 생산기술을
로봇·AI 팩토리·미래차 등 피지컬 AI 분야와
연계할 수 있는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Ⅲ 피지컬 AI와 지역의 중요성

피지컬 AI 대도약은
지역과 함께 성장할 때 가능합니다.

피지컬 AI는 연구실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제조 현장에서 학습하고 검증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북, 경북, 경남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제조업 기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 예) 전북: 자동차, 기계부품 / 경북: 철강, 반도체 소재부품 / 경남: 우주항공, 조선

지역의 강점에 AI와 로봇 기술이 더해진다면,
각 지역이 피지컬 AI의 기술개발과 실증,
생산과 사업화를 이끄는
새로운 산업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피지컬 AI가
실제 산업 현장에 빠르게 확산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뒷받침하는 금융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오늘 체결하는 업무 협약은
지자체, 정책금융기관과 지역은행이 함께
피지컬 AI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뜻 깊은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융위원회도 기업의 도전이 기술개발을 넘어
사업화와 성장으로 이어지고
지역 제조현장이 피지컬 AI의 핵심거점으로 거듭나도록
적극 뒷받침 하겠습니다.

IV 마무리 말씀

여러분,

최근 정부는 대한민국의 “피지컬 AI 글로벌 1강 도약”을
분명한 비전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민간의 창의적인 도전과 정부의 든든한 뒷받침이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전북, 경북, 경남이
대한민국 피지컬 AI 주요 산업거점으로 성장해 나가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기업인 여러분들을 포함해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끊임없는 도전과 눈부신 성장이 있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